



경주시 대종천(大鐘川), 대왕암(大王岩)과 대본리(臺本里)

황룡사 대종 갈아 앉은 대종천과 대왕암의 인연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clang44@hanmail.net)

‘종(鐘)’은 깨달음의 소리, ‘중(鍾)’은 술잔

한문 글자의 ‘중(鍾)’은 때리면 ‘동동’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쇠를 나타내는 ‘금(金)’자와 ‘동(童)’자를 합하여 만든 형성자(形聲字)이다. 그러므로 중을 한문으로 쓸 때 ‘중(鍾 = 金 + 重)’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중(鍾)은 술잔을 뜻하기 때문이며, 악기로서의 소리를 내는 종은 ‘중(鐘)’으로 써야 된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종로(鍾路)」 역시 잘못된 표기이다. 당연히 보신각(普信閣) = 종각(鐘閣)이 있어서 종로구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1943년 4월 1일 일제가 경성부(京城府)에 처음 구제(區制)를 실시할 때 착오로 ‘중(鍾)’이 아닌 ‘종로구(鍾路區)’로 써서 공포하였기에 오늘까지 그대로 써오고 있다.

지극한 도(道)는 항상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그 대원(大原)을 볼 수 없고, 대음(大音)은 천지에 진동하나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설(架設)에 의지하여 삼진(三眞)의 오(奧)를 보고 신종(神鐘)을 걸어서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깨닫게 한다. - 원문 생략

이것은 경주 에밀레종의 종명(鐘銘)을 해석한 글의 일부이다.

불교에서 종소리는 사방무량토(十方無量土)에 퍼져서 중생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울린다고 한다. 또 세상의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하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한다고도 한다.

종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때와 곳을 알리는 상징이다. 시간적으로 종은 시간의 매듭을 알리면서, 공간적으로는 신성성을 확충하여 신명(神明)을 깨우고 동화하며,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어왔다.

일본의 종에 대한 이야기에 침종설화(沈鐘說話)가 있다. 종이 물속에 잠겨 있다거나, 종이 용궁에서 왔다든지, 또는 종을 흙 속에 묻었거나 발굴했다든지, 흙속에 묻혀있는 종이 자연의 시기를 알려준다는 등등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이 영성(靈性) - 영감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대의 우리나라 설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종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 여러 곳이다. 전라남도 고흥의 종천(鐘川-하천법상 고흥천), 충청남도 서천의 종천(鐘川-하천법상 종천천), 임진왜란 당시 구례 용두리 섬진강의 침종설화(沈鐘說話), 그리고 이곳 경주의 대



종천 설화 등 여러 곳에 종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대종전은 토함산(吐含山)이 동쪽으로 토(吐)해내는 물을 받아서 양북면을 흘러내리다가 감포읍 대본리와 양북면 용당리 사이에서 동해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호국용의 조화로 대종천에 갈아 앉은 황룡사 대종(大鐘)

1238년(고려 고종 25) 몽고의 침략으로 황룡사 9층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는데, 이때 에밀레종보다도 4배나 더 큰 경주의 황룡사 대종(大鐘)을 몽고군이 이 하천에서 배로 실어 동해로 나가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해를 지키는 호국 용(문무왕)이 조화를 부려서 배가 대종천 하구에서 침몰되어 종이 가라앉았으며, 그 후 풍랑이 심해지면 이 일대에서 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혹은 물속의 종을 어렵듯이 보았다는 해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황룡사 종이 아니라 감은사 종인데,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빼뜨린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바로 이런 설화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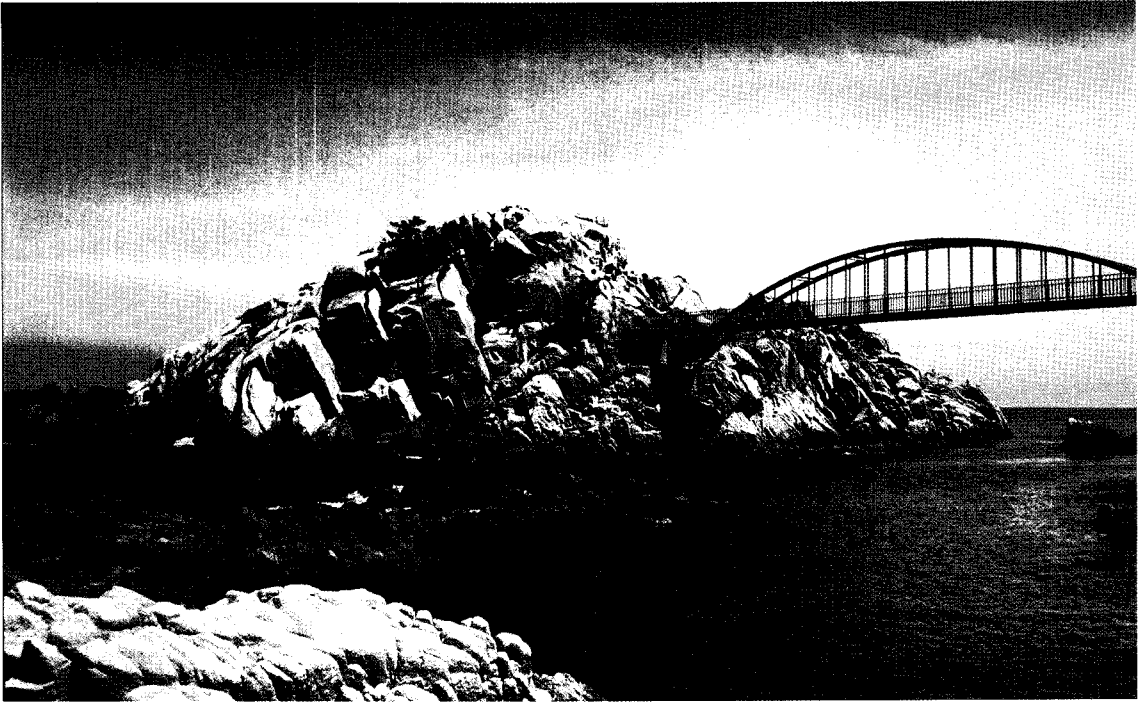
하여 '대종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대종천이 흘러드는 동해바다에 신라 문무왕의 해중능으로 밝혀진 대왕암(大王岩 - 댕바위)이 있다. 대종천의 북쪽은 대본리(臺本里)가 되고, 대종천은 용당리(龍堂里) 감은사(感恩寺)터 남쪽을 흘러 동해로 들어가는데, 그 하구에 동해의 용을 보았다는 이견대(利見臺)가 있으며, 이 일대는 신라 문무왕의 호국(護國) 염원이 서려있는 곳이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하였다.¹⁾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바닷가에 장사지냈는데, 이것이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문무왕의 해중능이요, 그곳이 바로 동해안 대종천이 흘러들어가는 곳, 대본리 앞바다의 댕바(대왕바위)인 것이다.²⁾

경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지만, 그중에서도 토함산 동쪽의 동해안지역은 발굴 유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라의 호국정신과 불교신앙이 결합되어 그 정수를 이루는 뜻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1) 일연, 《삼국유사》, 《문무왕본말》
2) 김부식, 《삼국사기》, 《문무왕 4》



아. 산꼭은 변천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저 오왕(吳王) 손권의 북산의 무덤에 채색의 금부(金甬)가 남아있지 않고, 위왕(魏王) 조조의 서릉의 망지(亡地)는 '동작'의 명칭만 남을 뿐이다. 옛날 만기(萬機)를 총괄한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어 초동(樵童) 목수(牧豎)는 그 무덤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 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허비하여 역사에 조롱거리를 남기며,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죽은 냇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니, 고요히 생각하면 그 지없이 슬픈 일이다. - 원문 생략

이것은 문무왕이 죽을 때 그 아들 신문왕에게 남긴 유언의 일부이다.³⁾ 그리하여 문무왕은 그 염원대로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용이 되었다. 물론 그 유언대로 시체는 서역의 법식에 따라 불태워 장사지냈고, 초상 치르는 절차는 힘써 검소와 절약을 좇았으며, 주군현의 과세를 줄이거나 폐지하였다.

그래서 경주시 토함산 동쪽 동해안 일대에는 도처에 '용(龍)'자가 들어간 지명이 깔려있다. 감은사가 있는 마을은 용당리인데, 당연히 동해 용왕(문무왕)이 드나드는 집 - 감은

사 범당이 바로 용당이기 때문이며, 그 밑으로 용이 드나들 수 있는 용혈 - 용굴이 남아있다.

대종천과 대종상(大鐘償), 호국용이 된 문무왕이 그 주연

신문왕이 감은사에 묵었을 때의 일이다. 이때 산위에 있는 대나무가 낮에는 돌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해졌으며,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대를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그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케 된다."고 하였다.

그 피리소리가 들리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 비를 내리고, 장마에 비를 그치게 하며, 바람과 물결을 잡재우니 이름하여 「만파식적(萬波息笛) - 효소왕 때에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으로 고치고, 이것을 국보로 삼았다.

문무왕 해중능 - 대왕암은 봉길리 마을 앞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 바위들이 십자형 수로를 이루고 있으며, 바위 한 가운데가 못처럼 패어 있어 물이 잔잔하게 거처 나가도록 되어있고, 그 가운데 물속에 댕개석이 놓여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무왕의 해중능이다.

대왕암을 바라보는 감포읍의 대본리(臺本里)는 경기도 군포시의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이 우리말의 '산밭'을 적기 위한 한자 표기이듯이, 이곳도 대밭 - 이견대 밭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런데 연극이나 영화의 각본을 또한 대본(臺本)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대(舞臺)의 각본(脚本)이라는 뜻이다. 이곳 대본리, 용당리, 봉길리 일대는 문무왕이 나라를 수호하고 동해를 지키는 호국용이 되었던 바로 그 무대이며, 그 주연(主演)이 된 곳이다.

문무왕의 비원(悲願)이 담긴 대본리. 그 동해바다가 「일본해(日本海)」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일본해 - 한국해(혹은 동해) 병기(併記)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나라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자칫 '일본해' 속의 문무왕 해중능이 될 뻔 하였던 역사의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천(大鐘川)과 대중상(大鐘償),
대본리(臺本里)와 대왕암(大王岩).

우리나라 영화제 행사 중에 「대중상(大鐘償)」이라는 상이 있으며, 그 상패에는 큰 종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곳 경주 동쪽 바닷가에 대중천(大鐘川)과 대왕암(大王岩)이 한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곳에 대본리(臺本里)가 있어서 문무왕의 호국 염원을 기리고 있으니 참으로 문무왕이야말로 역사의 대중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우리의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제나라 제 땅 이름을 빼앗기고도 헤맸던 모습이 조상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중천과 동해바다, 그리고 대왕암 앞에서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냉엄한 현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